



보도참고자료

2020. 11. 20.(금) 배포

힘내라 대한민국

중등 교원임용시험 시행 준비 철저 -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별도시험장 응시 안내 -

- 교육부가 질병관리청을 통해 확인한 중등 교원임용시험 준비생 중 확진자는 39명(20일 20시 기준), 검사대상자는 564명이다.
- 교육부는 검사대상자 명단을 교육청에 공유하여 금일 중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, 시험 당일에는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도록 안내하였다.
 - 교육청은 검사대상자를 위한 별도시험장 내 시험실을 122개 확보하고, 173명의 감독관을 배치하여 약 9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다.
 - 별도시험장 시험실은 방역수칙에 따라 책상 간 충분한 거리두기(2m 간격) 상태에서 응시자가 보건용 마스크(KF94 등)를 써야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.
 - 관련 학원 수강자는 체육 과목 응시준비생으로, 체육 과목 시험장은 총 21개소로, 교육청별로 1~2개교로 지정되어 있다. 해당 시험장과 별도시험장에는 만약을 대비하여 소방청 등과 협조하여 구급차가 배치될 예정이다.
- 교육청은 시험 당일, 응시자를 대상으로 사전문진표에 노량진 학원 방문 여부를 조사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하여 일반 응시생과의 접촉을 줄이도록 할 계획이다.
- 교육부는 임용시험 이후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시험장과 일반시험장 중 별도 시험실의 감독관, 해당 시험장 응시생 중 기간제 교사 등 학교 근무자는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.

